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정준 연구원 책에 연애를 거는 남자

글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두 평 남짓한 방안에는 책으로 둘러싸여 있다. 서가 곳곳에 놓여 있는 다양한 인형들의 표정들 덕에 심심하지 않다. 책을 펼 수 있는 책상과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나무 테이블도 서재를 구성하는 디자인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준(31) 씨 서재는 두 사람이 서 있기에 넉넉지 않아 은밀함이 느껴지면서도 책 향기가 물씬 풍겨나기에 더없이 아늑한 공간이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비교문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공부한 그는 문학 관련 책뿐만 아니라 미술, 영화, 학술서적, 지역학 등 독서의 폭이 다양하다. 아끼는 책일수록 서가 위 칸에 진열돼 있고 주제별로 책이 꽂혀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표책을 수집해 온 그는 “우표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인물, 지리, 동물 등 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공부하려는 동기를 준다”며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나라의 우표 ‘책’을 먼저 보여줬다.

서가 한 쪽에는 미술서들 중 독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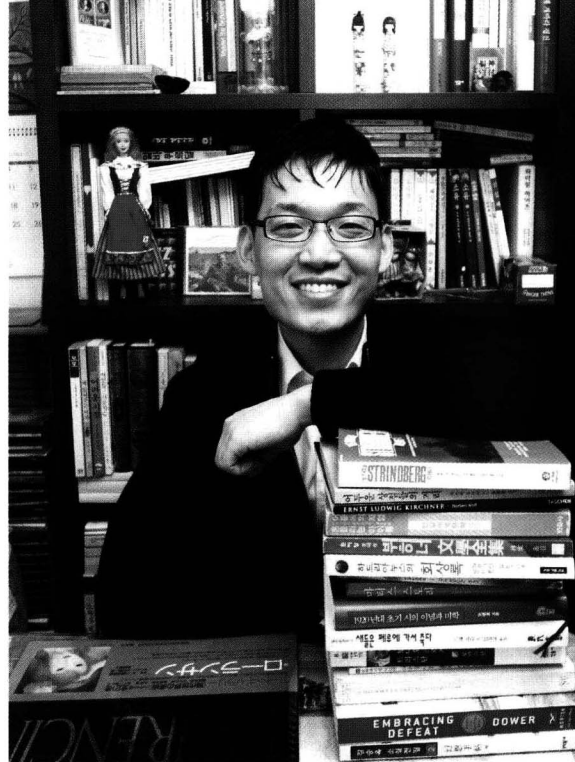
‘TASCHEN’ 출판사에서 펴낸 화집 시리즈가 눈에 띄었다. “외국 화집은 그림 못지않게 텍스트의 비중도 높아요. TASCHEN 출판사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저가공급으로 미술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일조했고, 텍스트 수준이 높아 미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비교문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은 스웨덴에서 공부할 때 만난 비교문학자인 스톡홀름대학교 잉예마르 알골린(Ingemar Algulin)때문이다. 그가 쓴 《스웨덴문학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고 스웨덴 문학과 비교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

“스웨덴에서는 ‘The Swedish Institute’라는 공공기관에서 아주 명칭한 스웨덴 관련 책자를 제작 공급하고 있어요. 이 출판사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책을 번역해서 스웨덴의 이모저모를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특히 이러한 책들은 스웨덴 대사관에서 직접 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앓이를 하던 시절이 있기 마련이다. 그에게 토마스만의 《토니오 크뢰커》는 힘겹고 절박했을 때 도와주었던 따뜻한 손길 같은 작품이다. “문학을 공부했을 때 이 작품은 문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킨 작품이에요. 돈과 인간으로부터 소외받는 토니오 크뢰커가 자신의 소외와 저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망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예술가가 된다는 점에 매료됐죠. 이후 예술가 소설에 관심을 갖고 카프카, 이청준, 서영은, 제임스 조이스 등 후속 독서로 이어졌어요.”

이 외에도 최인훈 작가, 오정희 작가, 김승



옥 작가, 허수경 시인, 파트릭 모디아노, A.S. 바이어트, 게오르트 뷔히너, 로맹가리 등의 작품은 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쓴 저작들을 모으기도 한다. 풀리처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존 다워가 전후 일본에 대해서 쓴 책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도 혼자 읽기 아까운 책이라며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단다.

“나 말고 책을 읽는 다른 독자와의 은밀한 만남, 그들의 흔적을 더듬으며 작가와 전 주인과 나와의 삼자대면, 그 모험을 그만둘 수 없는 재미, 나아가 항상 어디엔가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고독하게 항해하는 느낌” 때문에 휴일마다 헌책방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에게 독서란 ‘일상’이다. “그동안 예술 관련 책에 집착한 듯하다”며, “앞으로는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도 연애를 걸겠다”고 회사 내에 독서 동호회를 만들어 함께 독서함으로써 바쁜 일상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 넣고 싶다는 욕심도 부린다.

“독서가 삶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이유는 작가들과 직접 만날 순 없지만 텍스트로 그들과 소통함으로써 내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책은 많지만 어떤 책들은 무용지물이기도 하고, 사귀고 싶지만 나로부터 멀어지는 책도 있어요. 어떤 책들은 삶에 지쳤을 때, 고독할 때, 어딘가 간지러울 때, 갈증이 날 때, 친구처럼 다가오죠.”

